



# “다시 만난 첫사랑 설레는 로맨스 기대”

KBS 2TV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

“장미희 씨가 가진 당당함과 배우로서의 품격에 설렘니다. 아버지이기 이전에 남자의 로맨스, 기대해주세요요.”(유동근)

“평소 나무처럼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유동근 씨가 연기할 모습이 딱 그런 사람이네요.”(장미희)

KBS 2TV 새 주말극 ‘같이 살래요’에서 극의 중심이 되는 아버지 박충섭과 그런 효섭 앞에 36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 이미연을 각각 연기할 유동근(62)과 장미희(60)가 첫 방송 전부터 남다른 호흡을 자랑했다.

두 사람은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주말 안방극장에 신선한 중년 로맨스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동근은 먼저 큰 인기를 얻은 전자 ‘황금빛 내 인생’ 속 아버지 서태수(전호진 분)를 비롯해 많은 주말극이 아버지들의 투병 설정을 삽입했던 것을 염두에 둔 듯 “저는 이번에 암이 아니다. 아프지도 않고, 4남매 가장이자 구두장인”이라고 입을 뗐다.

유동근은 또 “명성황후를 같이 했던 윤창범 PD가 전화가 왔기에 ‘이번엔 무슨 암이냐’고 하니 ‘로맨스’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4년 만에 드라마를 하게 됐다”고 웃으며 “직업도 구두 장인이다, 제가 안 해본 역할이라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로맨스가 가볍게 웃음만 주기 위한 로코(로맨스코미디)로만 가진 않을 것”이라며 “전자 ‘황금빛 내 인생’이 인기가 많았는데 그 시청자들이

**유동근·장미희 등 출연... 17일 첫 방**

**부모·자식 세대별 ‘뽀’ 다르게 표현**

**막장 없이 경쾌하게 그리려 노력해**

이사 가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미희는 “미연이라는 배역보다도 효섭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제게 더 깊게 다가온다”며 “효섭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번 드라마를 끌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미연은 제게도 낯선 캐릭터이지만, ‘걸크러시’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나겨울 매우 추웠는데, 이번에 따뜻한 가족극으로 봄이 올 것 같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만날 선하 역의 박선영은 “저는 6살 연하남과 결혼하기까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겪는 고충이 많을 것 같다”며 “재밌게 보달라”고 말했다.

둘째딸 유하 역의 한지혜는 “그동안 사랑을 따라(외국에) 가서 내조를 열심히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연기했기 때문에 쉬는 동안에도 일에 대한 관심과 갈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현직 검사와 결혼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침 좋은 작품이 들어와서 기쁜 마음으로 복귀했다”며 “특히 유동근, 장미희 선생님

과 동료 배우들과 좋은 앙상블을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상우와의 러브라인에 대해서는 “이상우 씨와는 세 번 정도 호흡할 기회가 있었는데 잘 안됐다”가 이번에 만나게 돼서 기쁘다”며 “작가, PD님이 써주시는 러브라인대로 열심히 맞춰봐도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이상우는 “한지혜 씨는 예쁘고 연기도 잘해서 호흡하게 돼 좋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 예쁜 러브라인을 기대해달라”고 화답했다.

‘같이 살래요’는 일찍이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4남매를 키운 아버지 효섭 앞에 첫사랑이자 돈 많은 건물주인 미연이 나타나면서 효섭의 가족이 겪는 에피소드들을 그린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서로 다르게 그릴 ‘뽀’이 포인트다.

연출은 1997년 ‘아씨’부터 ‘명성황후’, ‘무인시대’, ‘서울 1945’, ‘다시, 첫사랑’ 등에 참여한 윤창범 PD가, 극본은 ‘내일도 칸타빌레’, ‘파랑새의 집’, ‘다시, 첫사랑’ 등을 쓴 박필주 작가가 맡는다.

윤 PD는 “여름 드라마가 될 예정인데, 그에 맞춰서 모든 세대가 즐겁고 경쾌하게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동근, 장미희, 박선영 외에 한지혜, 이상우, 박선영, 여희현 등도 출연한다.

오는 17일 오후 7시 55분 첫 방송.

/연합뉴스

## “황금빛 길 걷고 있어요”

신혜선 ‘황금빛 내 인생’ 종영 후 러브콜 줄이어

‘황금빛 내 인생’으로 현실세계에서 ‘신데렐라’가 된 배우 신혜선(29)이 드라마 종영과 동시에 쏟아지는 러브콜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 11일 시청률 45.1%를 기록하며 국민적 사랑 속에 종영한 KBS 2TV ‘황금빛 내 인생’으로 오랜 무명생활을 완벽하게 끝내고 스타로 발돋움한 신혜선은 곧바로 눈코 뜰새 없는 스케줄을 소화 중이다.

11일 저녁 ‘황금빛 내 인생’의 종영에 참석해 12일 오전까지 즐겁게 파티를 즐긴 그녀는 당일 저녁 출연진, 제작진과 함께 콤팩트 포상휴가를 떠났다.

콤팩트 휴가는 4박5일 일정이지만, 그는 2박3일 일정으로 짧게 즐기고 14일 홀로 귀국한다. 콤팩트에서는 사실상 딱 하루 쉬다 오는 것이다.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이유는 15~16일 언론 인터뷰가 잡혔기 때문이다. 그는 수습계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를 마무리한 후에는 이어서 곧바로 하와이로 출국한다. 패션화보 촬영을 위해서다. 하와이에서 촬영 겸 게스트로 한 휴식을 하고 돌아올 그는 몇일 후 다시 아프리카로 떠난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프리카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다.

신혜선의 소속사 YNK엔터테인먼트의 김민수 대표는 13일 “드라마 종영에 맞춰 해외 출국 일정 등이 연달아 잡혔다”면서 “숨돌릴 틈 없는 일정이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며 즐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드라마 출연제안이 출잡이 20여편 들어와 있다”면서 “마음에 드는 작품도 있지만 상대 배우나 편성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영화도 3~4편 정도 제안을 받았다”면서 “본인이 길게 설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있으면 바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촬영도 해야 한다. 신혜선은 ‘황금빛 내 인생’에 출연하면서 3편의 광고를 찍었고, 추가로 여러 제안을 받아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EBS1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5:00 왕초보 영어	09:40 다문화 고부 열선 스페셜	15:15 파프리카	20:40 세계테마기행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05:30 통일의 길 (북한의 오락 시설)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오리비결 (맥앤치즈의 딸기 버너나주스)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하말리아의 동물들 내릴때 반하다 4부 신이 된 동물들>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21:30 한국기행 <울 엄마 4부 마지막편>
9	30 KBS 뉴스 40 2018 평창 패럴림픽 라이브 (컬링, 대한민국: 영국)	00 TV소셜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2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휠체어 컬링 예선, 대한민국: 영국)	10 좋은아침	07:0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뽀뽀 뽀로로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3:00 지식채널e	16:45 땀방울 유치원1~2(재) 1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7:45 뽀뽀뽀 뽀로로	21:50 다큐 시선 <빛 권하는 사회>
10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8:00 땀방울 유치원 1~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뽀뽀뽀 뽀로로	13:10 장수의 비밀 (분이 할머니의 101번째 뽀)	18:00 생방송 특집! 보너스나1~4 19:00 사이언스타 Q (바보구멍 사칭기를 이용해 깜짝 영상을 만들어라)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0년째 참아온 며느리> 투명인간이 된 시어머니)
11		00 추리의 여왕 시즌 2(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09:00 똑딱맨 09:15 두다다(재) 09:30 플랑	13:40 다큐시선 (1920년, 간도)	19:30 EBS 뉴스 19:50 엄마를 찾자(재)	23:35 EBS 스페이스 공감 <찾아가는 공감>
12	00 KBS 뉴스 12 30 사랑의 가족	05 2018 평창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한민국: 캐나다)	00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준결승, 대한민국: 캐나다)	00 평창 2018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준결승)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호기심 소녀 노트.		24:05 지식채널e 25:10 과학 다큐-비욘드(Beyond)
1	20 공룡 메카드 50 안녕! 괴물개발 시즌2							
2	20 팔도방송(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2018 평창 패럴림픽 (컬링, 대한민국: 중국)	05 데릴남편 오작두(재)	00 뉴스브리핑				
3	05 특집다큐 (MB 의혹, 범 앰에서 다)(재)		10 똑?똑! 키즈스쿨 4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	00 4시 뉴스집중		00 양코로 MBC 다크프라임 (모들러, 도시의 집이 되다) 55 뉴스콘서트	00 여행배를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풍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 2 15 티빙메카드 R 30 주간연예수첩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00 인형의 집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공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브24 55 속보이벤트TV 인사이트	55 판결의 온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50 KBS 스페셜 (위기의 한반도, 평화의 문 열리나?)							
10	45 쉼터 50 KBS 뉴스라인	00 추리의 여왕 시즌 2	00 다시만나는 하얀거탑 UHD	00 리턴				
11	30 세계건강기행 5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MBC 스페셜 (중식이의 최자임금 사우팅)	10 김여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20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하이라이트	30 나이트라인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5일(음 1월 28일 丙午)

<b>子</b>	48년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0년생 가지치기를 잘 해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72년생 이동하면서 분주한 하루를 보낸다. 84년생 암초투성이의 운해로 진입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97, 86	<b>午</b>	42년생 수용하는 것도 괜찮다. 54년생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영동한 것만 눈에 띈다. 66년생 포괄적인 조치가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78년생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90년생 원점에서부터 한 번 뒤돌아다보라. 행운의 숫자 : 23, 25
<b>丑</b>	49년생 원근의 거리를 조정하면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느니라. 61년생 뻥이 다 알면서도 휩쓸려 들어갈 수 있음을 주의하라. 73년생 이왕이면 다중적인 복합 기능이 경제적이나, 85년생 현대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68, 97	<b>未</b>	43년생 좀 더 지켜볼 일이다. 55년생 내성에서 내키지 않으면 수 있을 필요가 없다. 67년생 지연된다면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79년생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91년생 선택을 잘 하면 실리를 취하게 되는 본원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1, 34
<b>寅</b>	50년생 대가만성의 욕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으므로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62년생 한결 같아서 차이가 없다. 74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86년생 전성으로 인해서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34, 36	<b>申</b>	44년생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에 신경을 써야겠다. 56년생 자신감 못지않게 겸손성도 절실함 요청된다. 68년생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나서지 마라. 80년생 생산성을 도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98, 94
<b>卯</b>	51년생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63년생 불청객으로 인해서 시간을 빼앗기겠다. 75년생 발상은 참신하나 진행 속도는 점진적이어야만 하느니라. 87년생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묵묵히 진행해 나간다면 발전을 기약한다. 행운의 숫자 : 51, 52	<b>酉</b>	45년생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것이 맞다. 57년생 쉽게 지나치기 쉬운 곳에 진귀함이 있다. 69년생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대단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81년생 출기초 소망하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1, 50
<b>辰</b>	52년생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 지 점검해 보자. 64년생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허등의 지장이 없겠다. 76년생 새옹지마의 이치이니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 88년생 남살에 신경 쓰지 말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자. 행운의 숫자 : 48, 31	<b>戌</b>	46년생 전혀 예상치 못한 바에 새로운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복잡해지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느니라. 58년생 규칙적이라면 신뢰감을 준다. 70년생 노출됨이 봐서 전전긍긍하는 형세이다. 82년생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세이다. 행운의 숫자 : 66, 61
<b>巳</b>	53년생 모든 일에는 예외도 있다는 것을 알라. 65년생 독창적인 안목이 절실함 요구되는 시점이다. 77년생 변수가 많이 작용하므로 상대적으로 수 있다. 89년생 기본 방향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77, 49	<b>亥</b>	47년생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으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59년생 반드시 처음과 끝이 같아야만 한다. 71년생 원만한 정도가 최상의 국량이니라. 83년생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3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